

기업들은 해외투자 확대는 국내 사업 이전이 아니라 외국시장 점유율 증가를 위한 해외시설 확대이므로 국내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해외투자 대상 국가로는 중국, 러시아 등이 계속 강세를 보였고 인도와 베트남으로의 해외투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투자 수익성 만족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승하였으나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중국에서는 하락하였다.

중국, 아세안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현재까지 범용품이 주류였으나 점점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된 제품도 일본으로 판매되기보다 현지에서 소비되는 경향이 높아졌다.

2004년 JBIC의 해외투자 관련 지원액은 4,131억 엔으로 전체 국제금융업무 지원실적의 37%를 차지했다. 이는 2003년 대비 50%나 증가한 금액으로 건수 면에서도 115건에 달해, 전체 국제금융업무 지원 건수의 53%를 차지하였다. 일본 기업의 해외투자 확대와 함께 JBIC의 해외투자 관련 지원액의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 은 진】

#### ◆ 호주 수출금융보험공사(EFIC), 新상품개발로 수출지원 강화

무역거래가 다양화 될수록 보다 발전된 금융을 필요로 하며 공적수출신용을 지원하는 ECA 역시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각국의 ECA는 부여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국 수출기업의 필요에 부응하는 新상품개발을 통한 수출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호주 수출금융보험공사(Export Finance and Insurance Corporation: EFIC)<sup>3)</sup>도 시장 환경 변화에 新상품개발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 최근 EFIC은 미국과 수출거래를 하는 호주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양국간의 FTA(AUSFTA)를 최대한 활용한 新보증상품을 개발하였다.

호주와 미국간 FTA는 200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약 2,000억 달러에 상당하는 미국 정부구매시장이 개방되었으며, 호주의 수출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EFIC은 AUSFTA가 논의되는 중 입찰과정에서 계약금액의 100%에 달하는 다양한 이행성보증 요구 및 미국 내에서 발행된 보증서만 인정되는 등 복잡한 보증요구가 호주기업의 수주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미국 내 연고가 없는 호주 중소기업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임을 인식하여 미국 금융기관인 Liberty Mutual과 5,000만 달러 규모의 보증대리인 계약<sup>4)</sup>을 체결함으로써 미

3) 1956년 연방정부가 전액 출자한 ECA로 수출금융(직접대출, 보증 및 중소기업 운전자금보증 등)과 수출보험 업무를 취급하고 있음.

4) 5,000만 미달러 범위내에서 EFIC의 보증으로 Liberty Mutual이 호주 기업에 대하여 이행성 보증을 제공

## 〈新보증상품 개요〉



국 내에서 호주 기업 앞 이행성보증서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EFIC은 미국의 이행성보증제공자(Liberty Mutual)가 호주 수출자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내 인지도가 낮은 호주 중소기업들의 미국 앞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新보증상품의 최초 지원거래는 금년 8월에 있었던 호주 철도제품제조 중소기업인 Teknis사의 미국 Amtrak 앞 철도부품 수출거래이다. 미국 Amtrak은 계약의 전제조건으로 계약액(50만 달러)의 10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하였고, EFIC은 新보증상품을 이용하여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첫 지원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거래가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

시장 개척과 호주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EFIC은 수출중소기업 지원강화를 위하여 호주 상업은행인 Westpac은행과 新운전자금보증상품을 개발 중이다. 이 新상품은 향후 수출과 관련된 보다 넓은 분야를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수출기업이 원하는 운전자금과 상업금융기관의 대출가능액과의 차이를 EFIC의 보증으로 추가 대출할 수 있는 독창적인 지원구조로 수개월내에 도입될 예정이다. EFIC은 상업금융기관과 차별화된 자체 위험평가기법을 통하여 동제도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윤 관】

#### ◆ 태국 수출입은행의 최근 업무실적 및 동향

태국 수출입은행(이하 '태국 수은')은 2005년 3/4분기 업무실적을 발표하였다. 태국 수은은 태국의 전반적인 수출증가에 따른 자금지원 확대로 2005년 9월말 기준 대출자산이 전년 말보다 16.6% 증가한 576억 바트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9월말 기준 총자산도 전년 말에 비해 17.4%나 증가하였다. 다만, 2005년 1~9월 중 순이익은 대규모의 대손충당금 설정, 채무재조정에 따른 손실, 이자외수익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한 2억 5,500만 바트에 그쳤다. 그리고 2005년 9월말 기준 무수익여신(NPL)은 56억 바트로 전체 여신의 9.8%를 차지하여 전년 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편, 태국 수은은 최근 태국 중소수출기업의 성장에 부응하여 수출금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금융기관은 물론 타 수출신용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태국 수은이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금